

제35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 개요

- 가. 구 분 : 국립극단 제35차 임시이사회
- 나. 일 시 : 2019.07.12.(금), 11:00~12:00
- 다. 출석현황 : 총 재적이사 9명 중 6명 참석 / 감사 참석
- 라. 참 석 자 : 이사장 김상헌, 이사 이성열, 고희경, 이상우, 이재경,
조현래(공연전통예술과장 이선영 대리참석) / 감사 김혁수
- 마. 간 사 : 사무국장 오현실

2. 보고사항

- 가. 제34차 정기이사회 의결처리 결과보고
- 나. (재)국립극단 2019년 상반기 실적보고
- 다. 제34차 정기이사회 후속 보고

3. 심의안건

- 가.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 나.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안)
- 다. 제3호 의안 : (재)국립극단 복무관리규정 개정(안)

4. 의결결과

- 가.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 원안가결
- 나.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안) - 일부 문구 수정 후 가결
- 다. 제3호 의안 : (재)국립극단 복무관리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5. 참고사항

- 가. 제35차 임시이사회 주요 회의록 1부

주요회의록

2019년 7월 12일

○ 의 장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성원보고>

이 사 장 : 안녕하십니까? 국립극단 제35차 임시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9명 중 현재 6분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감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이 사 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보고사항 3건, 심의사항 3건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고사항, 보고안건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

이 사 장 : 첫 번째 보고사항 부탁드립니다.

간 사 : (회의자료 3쪽, '제34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처리 결과' 보고함)

이 사 장 : 네, 이상 보고사항 질문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은 국립극단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보고입니다.

간 사 : (회의자료 4~5쪽, '국립극단 2019년 상반기 실적' 보고함)
(회의자료 6쪽 '제34차 정기이사회 후속' 보고함)

이 사 장 :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보고를 함께 진행해주셨는데, 보고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이 선 영 : 지방공연 중장기 사업계획 말씀하실 때 국립단체의 지방공연에 대해 늘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이,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계를 약화시킨다는 의견과 지방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충돌하는데 고민 중이신 별도의 지방 투어팀을 꾸리는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고, 팀을 꾸리실 때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 분들과 협업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GKL은 관광 쪽에서 문화체육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연사업을 해주시는 분들이라 추진하시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 장 :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이 상 우 : 투어팀을 만들면 배우들은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간 사 :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작품에 소요되는 인력도 별도로 구성해야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우 : 시즌단원 형식으로 선발하게 되나요?

이 성 열 : 작품별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 섭외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획을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지역 공연이 한 지역만 방문해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명동예술극장 작품은 규모가 크다보니 예를 들어 <조씨고아>가 내려가면 40명 내려가야합니다. 내년 RSC 해외초청 공연이 42명이 내방 예정임을 고려하면 정말 큰 규모지요. 백장극장의 공연은 대부분 창작극이거나 사회문제극이 많다보니 대중적이거나 친화적이지 않아서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공연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별도의 팀을 꾸려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상 우 : 명동 작품으로 관객의 취향에 맞는 공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백장이나 소극장 판의 작품으로 지역 예술발전 기여에 의미를 둘 것인지,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선 영 : 최근에 관람한 해외공연 발레 <백설공주>를 예들 들면 무대미술이 굉장히 심플하되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서 무대가 비어보이지 않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어형을 구성하실 때 지역과의 네트워킹도 염두 해 주시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 주더라도 무대 이동의 편의성이나 현장에서의 무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초기비용은 다소 들더라도, 심플하게 구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검토해보시면 연극 쪽에서도 새로운 예시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 사 장 : 국립극단의 의무 측면에서도 지방에 대한 기여나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 내지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는데 말씀하신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이해되고, 이상우 이사님께서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판단근거를 가지고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것인지 서울에서 좋은 작품만을 올리는 것이 좋을지 지속적으로 이사회와 함께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이선영 과장님께서서는 지방공연도 기술 등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지방공연 인력을 찾아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려운 숙제 같지만 생각해볼 안건입니다. 계속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았는데, 전년도 실적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비교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간 사 : 네. 유료객석점유율 약 73%였습니다.

이 사 장 : 2019년 상반기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탁월, 우수 등 획득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보고사항은 접수하고, 심의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안건>

이 사 장 : 제2호 와 제3호 안건 심의를 먼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간 사 : (회의자료 14쪽, '인사규정 개정(안)' 보고함)

이 사 장 : 기관장의 재량이 없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친인척 채용된 경우 공개하고, 비위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이다보니 너무나 당연한 내용 같습니다.

김 혁 수 : 제6조 2항의 개정문구에서 '예술감독 등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떨까요?

이 사 장 : 굳이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표현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선 영 :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 지침이 내려와서 이 표현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권익위 원래 지침을 같이 비교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사 장 : 명확하게 예술감독이 못한다 라고 표현하신 것 같네요.

이 선 영 : 권익위에서 내려온 규정 자체가 누군가,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 사 :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 ②항의 '예술감독이 따로 정한다'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되'를 지칭하고요. 개별 채용별로는 절차와 방법을 예술감독 등이 따로 정하면 안되며 원래의 인사규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감사님 말씀대로 '예술감독 등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재 경 : 재량을 없앤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 뒤에 나오는 문구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가 아니라면 이 문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

각됩니다. 취지는 ‘재량 자체를 아예 없애라’는 지침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 장 : ‘기관장 등에게 과도하게 재량을 부여하는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해라’ 라고 되어있어서 그러네요.

이 선 영 :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도로 하면, 굳이 예술감독을 명시하지 않아도 달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 사 장 : ‘예술감독 등이’라는 여섯 글자를 지우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국민 권익위원회와 다시 한 번 확인하되, 이사회에서는 여섯 글자를 지우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2호 인사규정 개정(안)’을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심의안건 진행하겠습니다.

간 사 : (회의자료 14쪽, ‘인사규정 개정(안)’ 보고함)

이 사 장 : 이 법의 시행이 조만간 시행하지요?

이 재 경 : 네, 7월 16일부터입니다.

이 사 장 : 주요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신고할 수 있고, 조사해야 하고, 조사하는 동안 피해를 시정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네요.

김 혁 수 : ‘본인 뿐 아니라 주위 직장 동료들도 신고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 장 : 제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사회 관습이나 문화가 왕따나 선배의 갑질 등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게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부분이니 이견 없으시면 ‘제3호 복무관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호 안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간 사 : (회의자료 9~12쪽, ‘(재)국립극단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보고함)

이 사 장 : 구체적인 예산 변경 사유를 보시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연출의 판>에서 하는 공연 수입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간 사 : 수입 예산 중 <연출의 판>이 소극장 판이라 워낙 객석 수가 적은데, 실험연극이라 구현을 진행하며 객석을 더 축소하며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고도를 기다리며> 수입이 늘어 보전되었습니다.

이 사 장 : 문화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선 영 :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진행해서 원하시는 성과를 얻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면 더 할지 여부를 향후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 장 : 저는 ‘사례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원래 계획보다 인당 금액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추가된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합니다.

간 사 : 레퍼토리라 하더라도 있던 기존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디자인을 활용하여 재 디자인하는 경우, 완전히 새로 디자인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되며 그 경우에 따라 다른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선 영 : 단가는 그대로 인데, 인원 수나 투입율이 변경되어서 그런가요?

간 사 : 그렇습니다. 저희도 단가 부분도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선 영 : 출연료나 창작에 대한 단가에 대해 국립극단이 단가를 정리해서 의견

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 성 열 : 고민되는 부분은 작품별로 계약하고 있고 연극계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투입하는 전체 시간을 계산하다보면 법정최저시급에 못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 장 : 연초 승인된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겠지만 공익법인의 경우 이를테면 처음에 잡았던 예산이 부풀리기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으니까 최저시급 문제 등 모두 잘 계산된 합리적인 예산으로 애초에 승인받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진 사례비 증가'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보강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 사 : 재공연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알리바이 연대기>가 약 5년만의 재공연으로 인해 기존 디자인, 제작물을 그대로 사용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새로 제작되어 지는 부분도 많아 졌고, 내용 변화에 따라 연습기간도 더 필요하다고 확인되어 예산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고 희 경 : '사례비'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사용하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료, 출연료, 제작비 등 명확하게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김 혁 수 : 기재부 예산 지침에 일반수용비 사례비라고 명시되어있다 보니까 사용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 영 : 표현보다도, 연습일수 증가 또는 재공연이지만 창작비 증가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혁 수 : 해외공연 예비비가 천만원 줄었는데 <나는 살인자입니다> 관련인가요?

간 사 : 네, 일본 공연을 준비하며 당초 계획보다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 장 : 뒤에 자세한 사업개요를 붙여 주셔서 좋네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나 이견 없으시면 '제1호 (재)국립극단 2019년 사업계획 및 예

산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독님 상반기 소회 부탁드립니다.

이 성 열 : 상반기는 실적과 같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경영평가도 10개 단체가 하락한 분위기 중에 '양호' 등급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현재 내년 7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9일에 국립극장과 함께하는 개막식, 개막공연, 특별공연, 그 외에도 전시 퍼포먼스와 책자 발간, 해외 초청공연까지 열심히 바쁘게 진행 중입니다. 이 70주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 중에서는 <북한 현대연극 낭독 공연> 행사가 지연되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 사 : 사상이 짚은 특수자료 이다 보니 통일부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 상 우 : 삼청동에 있는 경남대학 소재의 북한대학원 대학 내 북한자료센터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 열 :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 장 : 지난 1~2년 잘 운영해주신 것 같고 좋은 평가도 받으셔서 이사회로써 뿌듯하네요. 이상으로 제35차 임시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헌 (인) 이 사 이성열 (인)

이 사 고희경 (인) 이 사 이상우 (인)

이 사 이재경 (인) 이 사 조현래 (인)